



### 종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종강예배가 5월 30일 화요일 저녁 6시에 학관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의 말씀은 반세호 목사가 담당한다. 주제는 “그 밤에 만난 사람들”이며 본문말씀은 마가복음 14:43-52절이다. 마친 후에는 식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 주요 기사 안내

- 1면 간사칼럼 ... 윤상아
- 2면 서기연대표 취임사 ... 남명현  
중앙위원의 글 ... 은산/김영경
- 3면 기독교대학원생들의 소식 ... 이은지  
선교센터 '그들'
- 4, 5면 인공지능과 기독교 특별대담 ... 고의천,  
임찬송, 편집부
- 6면 공기연(비전이어링) 소식 ... 김선우  
농기연 소식 ... 문예은
- 7면 서기연 토크 콘서트 ... 편집부
- 8면 개강예배 사진

### 간사칼럼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서울대 JOY선교회를 담당해 온 윤상아 간사입니다. JOY선교회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둘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기에 JOY라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저도 이 정신으로 살고, 사역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JOY학생들뿐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문구이기에 단체보다 더 유명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JOY spirit으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라(창12:1)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익숙한 곳, 내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죄를 짓는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사역을 하며 서울대 학생들에게 이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을 극대화 하는 삶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가장 힘든 이야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과 애쓰는 삶과 신앙생활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종교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노력을 멈추어도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응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알아가고 깊어져 가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러 반응하고 내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는 것은 기계적인 반응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분명 걸리는 일이고 학생 시절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지루하고 끝이 없는 듯 느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등산을 하듯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산 밑의 경치가 훤히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아직 정상에 가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느끼는 것처럼 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누리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십자가의 삶 없이 그 과정에 오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한 이후에 비로소 이웃을 돌보는 삶, 나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인정과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서 내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동아줄을 잡고 그것을 놓치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실제로는 능히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아버지가 밑에서 그 사람을 잡고 동아줄을 놓고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잡고 있는 동아줄로부터 절대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놓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자유해지는 삶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안식이 생겨납니다. 안식일

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생겨난 안식과 여유가 이웃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 그리고 사랑이 이웃을 향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경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바보처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렇게 살기 싫다고 생각하거나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겉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척하기 위해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며 사랑이 흘러가야 올바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후 그 감격과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길 원하는 이웃을 보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웃을 보며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망한 일을 하거나, 내가 힘들 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18년 정도 캠퍼스에서 간사로 사역하며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와 내 상태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쉬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긴 사역의 기간 동안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경험을 했고,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역자도 무너지고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할 때 함께 공동체에 있는 학생들이 사역자나 리더들을 섬기고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그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면 사랑을 하는 것, 내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주기만 하는 존재로 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는 각자가 몸의 지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캠퍼스에서 그런 공동체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더라도 함께 서로를 받아 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애쓰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많이 컸다"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고 하신 말씀이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먼저 포기하는 삶, 내려놓는 삶, 떠나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감각이 청년들에게 너무 적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유와 기쁨, 행복을 원하지만 스스로를 얽매며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르게 비유하자면 수영을 하는 사람이 먼저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뜨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뜨려고 안간힘을 쓰고 힘을 풀지 않는 것은 물에 뜰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내 삶이 내 전공과 내 스펙과 내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때 역설적으로 내가 전공과 스펙과 노력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컨트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물에 뜨는 경험은 글로 읽어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헤엄치는 상황이라면 물에 뜰 줄 아는 것과 아닌 것은 완전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모든 삶의 애씀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명에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짐을, 내 근심을,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 서서히 애쓰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아직 많은 짐과 자리가 주어지기 전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훈련을 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학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용해보고, 이웃을 위해 내 재정을 사용해 보는 것, 바쁜 학업 중에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켜보는 것 등 우리가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는 각각이 이루어져야 삶에서 실천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은 많은 고민이 있는 때이고 중요한 선택이 있는 캠퍼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20대, 30대를 지나 40대, 50대가 되며, 그 이후에도 점점 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윤성아 간사(OY)

## 서기연 대표 취임사



고통에 직면하면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나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경험한 바는 반대입니다. 고통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그러나 긴 침묵만이 흐릅니다. 사십여 일을 골방에 틀어박혀 극야(極夜)를 보냈습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해야 했습니까? 예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지, 왜 그를 따르는 다른 제자들까지 줄줄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아픈 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혹독한 줄 알았겠습니까? ...

기연은 유난히 긴 밤을 견고 있습니다. 십 년 전 전국에 칠십 개가 넘었던 기연이 이제는 스무 개도 남지 않았고, 전국기연 네트워크도 중단되었습니다. 서기연 역시 지원자

부족으로 여름과 겨울, 두 총회 연속으로 중앙위원단이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어 연합사역이 일시적으로 무기한 중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서 임기를 시작한 저로서는 두렵습니다. 연합의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서기연이 더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지 못한 채 땅만 버리는 서기연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일까요? ...

우리가 견고 있는 밤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밤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 속에서, 그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공허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를 바라던 일을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매일 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만이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 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롬 8:31-32)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여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지나야 하며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상실, 슬픔, 절망과 같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복음서가 그리는 하나님은 고통받고 죽임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함께 고통받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곳에는 상처 입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으로 향하는 십자가 여정을 걷다 보면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신의 침묵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 곁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명현(종교 18)

## 중앙위원의 글



처음 중앙위원단에 합류하기로 한 계기는 그리 거창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가을, 어딘가에서 봉사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눈에 들어온 게 중앙위원단이라 큰 고민 없이 첫 번째로 중앙위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인준을 받을 때가 되어서는 뒤늦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무거운 책임의 자리인 걸 알게 되어 고민을 다시 하면서 ‘중앙위 하겠다, 안하겠다’를 반복하다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아름답지만 않은(?) 시작이었지만 한 학기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시점에

서는 그때 중앙위를 한다고 결단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위를 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바가 많지만 그 중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섬김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1,3)”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태껏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남들이 알아주길 바랐고, 그러면서도 그게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아예 섬김 자체를 별로 하려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을 맡게 되면서부터는 하는 일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그 섬김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 치하와 감사에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중앙위를 하는 여러 분들로부터 신앙인 대학생으로서의 삶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앙위원단에서 나이가 막내 나이대라 선배들이 많이 챙겨주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곤 하는데 저보다 몇 발자국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자극받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예시가 있는 건 참 유익한 일인데, 중앙위원단에 있으면서 멋진 예시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흠을 사용하시며 모든 사람을 모든 곳에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말씀처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어딘가에 도움이 되고 그 와중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워간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은산(경영 22)

## 중앙위원의 글



저는 타인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제 모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해서요. 싫다는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궁금하지 않은 정보를 늘어놓기도 싫어서 전도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제가 중앙위원단에 자원하게 된 것은 당시 목상하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3:30).’ 쇠하여지겠다는 결심을 하기는 했지만, 중앙위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놓은

것은 별 것 없었습니다. 졸업학기라 시간이 많이 남았고, 비대위를 거치면서 인원이 충분히 증원된 탓에 할당된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쇠해져 볼까, 해서 평일 저녁마다 하는 기도회에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쇠하여지기를 결심했는데, 주님께서서는 이곳을 회복의 자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앙위원단이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그분을 찬양하며, 서로 ‘기쁨을 돕는 자(고후1:24)’가 되어주는 순간마다,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는 사람들의 연합은 천국과 같구나, 감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학교 곳곳에서 주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을 전해 듣고 신앙 친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면서 제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짧게, 용건만 간단히 쪽지처럼 쓰던 기도가 끊기 아쉬운 통화처럼 길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서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는데, 어느새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서울대에 넘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자

존심을 세우지 않고, 당신의 공활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실망할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미 일어난 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하기 어려웠던 제 연합함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알수록 더 좋은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좋은 신 주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논문, 대학원 입시 등으로 바빠지면서, 아깝고 귀찮은 시간을 향유 옥합으로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여경(자유전공학부 18)

기독교대학원생들의 소식

기독교대학원생모임(이하, 기대모)은 서울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대학원생들의 모임으로, 2010년 11월에 창설된 모임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독교 지성인의 모임”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모 공동체는 현재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앙과 학문>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기독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학문의 길을 걸어오신 삶의 간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대담, 독서 모임과 같은 비정기적인 모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기대모와 최근 기대모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대학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본 기대모는 주로 서너 명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2월만 해도 정기모임에 두세 명이 참여해서 서로를 위해, 기대모를 위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단출한 모임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원이 늘더니 약 한 달 만에 매주 열 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처음에는 공간이 꽉 차게 모여있는 모습이 어색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예상보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이니 모임에 더욱 활기도 있고 나눔도 풍성해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목상을 충분히 나누고 기도하기에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정도로 모임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몇몇 지체들이 서로 친해질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4월에는 MT를 진행하였습니다. MT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여하시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자원하여 준비를 도와주는 지체들과 언제나 기대모를 도와주시

는 박철호 목사님(오직예수교회)의 후원으로 수월하게 준비했고, 약 스무 명의 지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기독교수회관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모든 시간에 저와 지체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모여 즐거운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대학원 선배님들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기독교수협의회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모임에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기쁨과 놀라움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학부생 신분일 때는 학교가 학부생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학원생이 되고 보니 학부생만큼 많은 대학원생이 이 학교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몰랐던 서울대의 한 겹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대학원생들이 그 인원 수에 비해 얼마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인지, 학업과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상 얼마나 연합하기가 어려운지 몸소 느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는 기대모의 창립멤버이자 3대 대표로 섬기셨던 김병호 교수님(승실대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께서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대표로 섬길 당시에 하나님께 “주님, 이 대학원생 모임이 왜 있어야 합니까?” 하는 기도를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대학원생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기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흩어져 있는 대학원생들이 모임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기대모에서 다양한 대학원생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점점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언젠가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 기업의 인재, 한 대학

의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원 시절 동안에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훈련받는 것은 비단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일일 것이며, 기대모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을 돕는 공동체이고자 합니다.

서울대의 수많은 연구실 곳곳에 속해있는 대학원생들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스스로 느끼기에도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학원생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이 불확실한 대학원생의 시기를 먼저 걸어간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 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모임에 참여하는 지체들과 섬겨주시는 스텝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캠퍼스에서 계신 많은 기독교대학원생 분들을 기대모로 초대합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것만 같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진정한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기대모와, 주의 대학원생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은지(심리 박사과정)



2023년 4월 7일 기대모 MT 단체사진



기대모 MT 조별 나눔



기대모 MT 조별 나눔



수요일 점심 정기모임

대학촌 선교센터 '그들' 소식

「진리는 나의 빛」 2022년 가을호는 '대학촌 선교센터 개원'이라는 제하에 선교센터 개원 감사예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1994년부터 대학촌 선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선교센터는 3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4일(일)에 개원하였다. 예배에는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실, 상담실, 다목적실, 찬양연습실 등으로 구성된 선교센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 받기를 기도하였다.

대학촌 선교센터의 이름은 서울대 기독교 학생, 서울대학교 회, 대학촌교회 교우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결과 '그들'

로 정해졌다. '그들'은 그(하나님)의 딸, 그분이 거하시는 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들'에서는 당초 기대와 같이 서울대 기독교인연합, 서울대학교회, 학부모기도회, 대학촌교회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기도회, 찬양팀 연습, 신앙서적 스터디, 일대일 양육 등으로 모이고 있다. '그들'은 개원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월별 약 400여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월별 사용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에서는 정기적인 모임과 특별한 모임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매일 오후 10시의 열린 기도회 청년 신앙서적 스터디, OO국 선교팀 모임 등이 진행 중이다. 특별한 모임으로는 '그들' 토크콘서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의 제2회 토크콘서트는 4월 1일(토) 오후 2-4시에 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양학과 김학철 교수를 연사로 모시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오픈된 스터디카페 공간과 개인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편안하게 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학촌 선교센터 '그들'의 사용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섬김과 사랑이 있는 '그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또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8 운용빌딩 4층  
찾아오는 길: 신성초등학교 버스 정류장(5516 종점)  
문의: 양현숙 선교사(010-9265-3627)

최근 서울대학교에서는 기독교대학원생의 여러 필요를 채우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SNU Bible College에서는 성경 통독, 선교학교 및 기도학교, 시편 및 요한복음 성경공부, 전도세미나, 북클럽 등의 다양한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작성 상담 세션 역시 오픈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신실한 기독교대학원생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며 유익을 주고받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 (연락처는 사진 참조)

개원감사예배 1

그들 기독교 토크 콘서트 2

개원감사예배 2

선교센터 '그들' 간판

## 진리는 나의 빛 특별대담

## “인공지능과 기독교”

지난 1월 공개된 OpenAI의 ChatGPT는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삶의 한 가운데로 다가온 새로운 기술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민도 커진다. 이에 본지에서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소속의 기독교인 형제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의 자리를 열어 함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 대담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답은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생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고의천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임:** 임찬승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이:** 이경건 편집인  
**장:** 장동원 학생기자

## 1. ChatGPT와의 첫 만남

**이:** 여러분께서는 ChatGPT,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걸 접하시게 된 시기가 언제쯤이신가요? 저는 지난해 12월경에 페이스북에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나왔어”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몇달 뒤에 심심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고:** 저도 그거를 이제 접하고 쓰게 된 거는 올해 초였어요 저는 사실은 GPT2랑 3 나왔을 때도 이제 GPT3를 교육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영상 같은 것도 좀 찍어놓고 막 그랬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대학원 생활에 치여 살아서 약간 현업에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쓴 것은 한 두 달 전 즈음인데요 이미 근데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서비스들이 그렇지만 한 번 붐이 일어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죠. 출시한 다음에 두 달 1억 명의 사용자가 썼다고 하니깐 그리고 나서 이제 써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충격을 사실은 느꼈던 게 2016년에 알파고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지금 지금 시점에서 알파고가 최정상급의 이제 바둑 기사들이 이기는 거는 아마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언젠가는 이기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4대 1로 알파고가 이기면서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것 때문에 약간 당황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임:** 저는 얼리어답터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써보고 나서 굉장하다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존의 텍스트 생성 언어모델이 실제로 써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처럼 ChatGPT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퀄리티가 높아서 놀랐어요.

**장:** 저도 다른 분에게 뒤늦게 듣고서 그렇게 있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큰 관심은 두지 않고 있었는데, 한번은 단순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맡겨보았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당황했었습니다.

**이:** ChatGPT의 등장에 대해 충격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여쭙보고 싶어요.

**임:** 일단 창작을 굉장히 잘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자기소개서 예로 들 수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bullet point로 주고 이걸 글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글로 써주잖아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소설을 써달라고 하면 써줄 수 있고 다양한 작업들이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해요. 이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 AI가 예술가들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그런 우려가 사라져 가는 했지만 예를 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적합한 목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용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적 정보를 얻어내는 용도인데 이것은 ChatGPT의 한계점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 지식 같은 것은 데이터에 많이 저장되고 학습했으니까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좀 더 어려운 수준의 내용이나, 사람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준의 지식을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미 잘 알려진 지식도 틀린 내용을 너무 확실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정확한 지식을 얻거나 팩트 체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혹시 어떤 점에서 ChatGPT를 보셨을 때 확 다가오고 뭔가 반응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임:** 기존 언어모델들 혹은 챗봇들은 쓰다보면 얘가 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감이 대충 오는데 ChatGPT는 아니었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도록 강하게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척척척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살마 의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제대로 된 건지와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요약해줘”, “이거 아이디어 짜봐”, “계획서 한번 써봐” 같이 다양한 것을 시키는데 다양한 챗봇을 쓴 게 아니라 하나의 ChatGPT에서 대답이 다 나오니까 “진짜 지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고:** 첨언을 하자면 ChatGPT가 잘한다고는 말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예술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기존의 시스템 데이터 내에서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진 않을 것 같고요. 비슷한 예로 ChatGPT한테 논문을 써달라고 하면 새로운 이론에 대한 거를 써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대신에 기존 논문을 주면서 이걸 분석하는 페이퍼를 써라 하면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창작을 하지만 진짜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약간 거의 모방에 가까운 창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2. 인공지능, 위기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푹푹해보이는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위기라는 단어가 자주 같이 나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위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위기라고 느낄까요?

**고:** 사람들이 위기감 또는 어떤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는 그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예요. 그게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기독교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사회 발전 양상을 보면 이제 기술 또는 자본 영역에서의 발전이라든지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데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ChatGPT는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강 인공지능 선에 있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두려움이나 염려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 양상 또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거나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한편으로 다른 분야에서 그렇듯 ChatGPT가 기존의 신앙 활동도 인간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활동 중에 많은 부분을 ChatGPT가 대체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많은 일들을 대체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기감이 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AI시대에 우리가 적응한다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나 새로운 기술에 인간의 사고가 길들여지는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종속 돼가고 기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계로 가는 거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대체될까요?

**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인도자로 AI가 대신 인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요.

**이:** 혹시 찬송 형제님은 어떤 면에서 대응이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임:** 저는 ChatGPT가 임팩트가 큰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모델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크게 변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건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던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상상이 현실로 피부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 있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계라는 데가 이런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전반에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기독교 콘텐츠가 많이 생성 되기 시작했고 이게 코로나가 끝난 지금 시점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출퇴근을 하면서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상을 좀 참고해 볼 때 이런 AI가 기독교에 줄 수 있는 임팩트도 그런 것과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AI가 신앙생활에 있어 교회 공동체나 리더십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되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를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좀 더 참석할 것이 권장되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나 어떤 좀 더 내가 알아보고 싶을 때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내가 더 찾아서 하는 것이고 이게 메인인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AI를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이것이 메인인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AI를 활용한 뭔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앱이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미리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규제 차원에 이르도록 교계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과연 성경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 범위인지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 3. 장안의 화제? 주님AI

**이:** 학생 기자는 위기 혹은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장:** 저는 ChatGPT 자체에도 별 감흥이 없었기에 이게 기독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다가 3월 중순에 주님AI라는 사이트가 공개되었죠. 그걸 봤을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인터넷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신학생, 목회자 95% 대체될 수 있다.”

저는 이 댓글에 반박을 못했어요. ChatGPT라는 게 사람이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 영역과 같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종교와 크게 또 구분이 되는 점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답을 구하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AI에 의주를 맡겨버리게 되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삶의 문제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말씀을 읽고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게 아주 단순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질문하는 식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직접 질문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구해 나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들이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교육과정의 언어로 풀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엄밀성과 연관성 혹은 적절성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 연관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맥락에 어떻게 녹아서 오는지 한 그런 측면이 앞으로 앞으로 더 진짜 더 중요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한테 주어진 답을 정말 내가 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

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주님AI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들 느끼셨나요.

**임:** 저는 방금 말한 이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답해주는 현상과 이제 주님AI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본다면 어쨌든 주님 AI는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나름의 성경적인 대답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초신자들이나 궁금한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 하나의 기술적인 위험성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답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AI를 제가 알기로는 ChatGPT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앞뒤에다가 “너는 기독교 상담가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역할이야, 편지 형식으로 뭔가 답변을 내줘” 이런 식의 프롬프트(명령문)를 사용자의 질문에 덧붙인 후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서 나온 답변을 뭔가 새로운 모델을 붙여서 대답을 좀 변형시켜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ChatGPT가 메인 모델로 사용이 되는 건 확실한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ChatGPT는 기독교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는 기독교인이야”라고 설정을 걸어도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질문에 따라 애가 주는 대답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매번 질문할 때마다 달라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뭘 정답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성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뢰성의 측면을 말씀해 주셨네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고:**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언급하는 인간의 지성의적 측면에서 지능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정의적인 측면 그다음에 의지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주님AI를 포함하여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도움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사실은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하거나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지식이 없어서 모자라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도 흔히 말하는, 인간의 죄와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선악과의 그 기사를 보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혹을 받고 그걸 따먹게 되죠. 지식적인 측면에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의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사실은 ai가 쉽게 대체하기는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잘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별로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극복하고 결국에는 다른 대상을 사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납득은 할 수가 있어도 실천에 옮기는 데까지는 분명히 의지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앞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ChatGPT를 비롯해서 주님AI도 그렇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게 오히려 이것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강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AI, 저도 이제 몇 번 보긴 했는데 되게 답변이 무난해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 모델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잘해 줄 수가 있지만,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아들어가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누구나 봤을 때 그냥 좋은 말이네 괜찮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정확하게 딱 들어 맞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해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되려면 앞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죠. 구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훨씬 좀 더 더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생각이 난 건데 AI가 우리의 의지까지는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게 AI의 어떤 한계점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전4:15)” 만약에 ChatGPT 같은 생성 언어 모델 AI가 지식 전달의 역할을 좀 대신 해줄 수 있다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리더 같은 사람들의 역할은 뭔가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삶을 살아내는 것의 본을 보여주고 성도들을 케어해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살짝 있어요.

**장:** 아까는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꼭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교 외에 다른 역량들도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AI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도, 선교예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파고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쪽이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해 왔던 방법은 늘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 왔잖아요. 저희 이제 더 이상 비둘기로 번제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이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면서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도움을 준 것이죠. 그보다 전에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생겼던 것도 이제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통한 기록문화가 발달하며 등장했던 거지 초기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교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역량들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위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다면 지금 당장은 흔히 말하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개인 맞춤형) 된 형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개인화의 방향으로 맞춰가거나 또는 그걸 오히려 촉진하는 방향으로 AI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개인화라고 하면 흔히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것을 제시하는 알고리즘 정도지

만,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AI의 발전 흐름이 한편에서는 거대화, 반대편에서는 개인 맞춤일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계속 미세 조정을 해서 그 사람도 최적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분명히 앞으로 나갈텐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교회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인가가 아닐까요. 이런 개인화의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오히려 AI로 인해서 그것이 가속된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공동체 다른 모든 집단 또는 다른 모든 이 흔히 말하는 기술들은 나한테 다 맞춰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오는데 나한테 잘 안 맞춰줘요. 오히려 나가 변화될 걸 이야기하고 내가 회개할 일 할 걸 이야기하고 내가 흔히 말하면 바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나 아니면 구역을 다 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다른 데는 다 나를 맞춰주는데 왜 나를 맞춰주지 않는 거지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걸 극복할 만한 모습을 교회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는 대단히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기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인화가 촉진되고 있는데, 각자 개인적인 차원으로 다 나눠지게 된다면 이런 어마무시한 개인화의 이런 추세를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을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4. AI시대의 기독인, 우리들

**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방향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더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임:** 저는 어차피 지금 AI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교회에서도 AI를 찾기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AI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 같은 게 좀 해소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상한 음모론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과도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게 AI를 공부하시는 기독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 보조구로 작용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저희가 사실 완전히 이제는 근대화가 되면서 가장 컸던 게 사실 공업화였잖아요. 대량 생산, 표준화를 기치로 걸었던 공업화가 이뤄짐에 따라 이제 수공업자들 다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수공업품을 사요. 그리고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기성품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받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꼭 있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번에 많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어요. 개인화가 되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 수도 있다든가, 설교라든가, 우리의 말씀 읽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하지 않는 믿음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통계 분석 발달하고 머신러닝 발달하면, 내가 이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너의 유전자가 뭐가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성적이 어땠고 키가 어떻게 등등의 정보를 넣으면 너는 몇 살까지 무슨 직업을 하다가 얼마를 벌고 누구랑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 낳고 언제쯤 죽을 거야 라는 답을 주는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피팅을 할 때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하고 가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아웃라이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도대체 애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걸 했다고 무슨 세계적인 성취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모습 삶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를 더 없자면 교회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가 되려고 하는 또는 그런 시도를 하는 신앙인들에게 좀 지지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임시판을 보면 사실 흔히 ‘메디컬고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의대 지망이 사실 한 임시 준비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 진로를 비롯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각자가 기도하며 제 삶의 어떤 지점마다 선택을 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더 나은 길만 너도나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하고 듣고,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정말로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지지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AI는 두려워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이 모여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펠릭스가 가해졌을 때 오히려 그 사망으로 퍼져나가서 이방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도들과 초기 크리스찬들이 선교를 하게 됐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AI 활용을 해서 더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선교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든가 등등 다양하게 가능할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개역개정, 민수기 14장 2-3절)’라고 반응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머물다가 죽게 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불만으로 말했지만 정말로 원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경륜을 이끌어가시지만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는 그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릴 걸 고대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에 기반해서 현상을 재해석하려고 해야지 반대로 현상을 가지고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301동 연합 기독교 동아리 비전이어링 소개

공대에는 301동 연합 비전이어링과 화생공 코람데오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모임 및 공대 기독교학생들의 연합체로 “공기연”이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대의 기독교인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대 연합기도회: 매주 월요일 13시-13시 30분, 36동 지하 1층 B113호 공기연룸**

**301동 연합 비전이어링: 매주 수, 금요일 13시-13시 30분, 301동 306호 강의실**

**화생공 코람데오: 매주 목요일 11시-12시 30분, 302동 619호**

비전이어링은 301동 연합 기독교학생 모임으로, 현재 기계공학부 소속 동아리로 등록돼 있습니다. 기계공학부 외에도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의 301동 기독교인 학생, 교수님들이 모여 신앙을 기르고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20년 이상 지속되는 전통이 있는 동아리이며, 신앙에 따른 비전을 품고 엔지니어링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비전이어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이어링은 주 2회 점심시간에 30분씩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수, 금요일 13시에 301동 306호 강의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로 경건 습관과 신앙이 발전하도록 노력하며, 일상을 돌아보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신앙과 학업 간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갑니다. 또한 301동과 공과대학을 위해 기도하며, 작년 2학기 시험기간이나 올해 신입생 OT(새터) 기간에 간식, 꿀물나눔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방학에는 MT를 통해 친목을 다지거나, 동아리 선배님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지도교수님의 적정기술 봉사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MT는 교내 기독교인회관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계절에 따라 스키장에 가기도 합니다. 기술봉사는 우리의 전공을 직접적으로 사용해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올해 1월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발전된 전기로 전기 오토바이나 가정 사용량을 충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 지식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경험이 되어, 봉사 경험을 넘어서도 우리의 전문성을 사용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꿈을 기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비전이어링의 모든 모임과 활동은 예수님을 영접한 신우나, 관심 있는 모든 학우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비전이어링의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같은 전공의 신실한 친구들을 사귀고,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기에 활동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와, 지난 학기에 졸업한 지체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301동 학우 여러분, 비전이어링에서 만납시다!

**이환희(항공우주 22):** 저에게 비전이어링은 301동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매일 비전이어링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공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대표가 시킨 것 아닙니다)

**최민호(기계 18):** 비전이어링을 통해 저는 같은 공학 분야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고민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나와 다른 형식과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방식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제가 간혀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바쁜 생활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비전이어링 지체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인스타그램: @visioneering\_snu)

김선우(전기 19)



군입대 환송 사진



2월 공대 새터 봉사 사진



1월 탄자니아 기술봉사 사진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공대생 이미지의 사진

## 농기연 소식

안녕하세요, 농생대 기독교인 연합 소개를 맡게 된 문예은입니다. 농기연에 대해 쓰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작년 수시 면접 간식 나눔을 통해 느꼈던 점과 이번년도 '천로역정' 책 모임을 진행하면서 떠올리게 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10월 즈음, 2023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을 위해 박카스와 말씀 카드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골치 아픈 과제를 하던 중에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 단순 노동(?)을 하게 되니 생각보다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2학기 로드가 적었던 저에 비해 많은 로드를 지고 살아가던 친구가 간식 사역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는 적잖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의 무게와 그 효용(즐거움이나 행복, 보상)을 저울질하는 작업을 대학 입학 전까지 무수히 반복해왔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간식 나눔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점수가 깎인다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간식 나눔을 준비하는 시간만큼 그 친구가 잘 수 있었을 시간을 헤아려보니 '잠을 포기하고 사역을 준비한다고?'라는 물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잠 시간을 내려놓을 만큼 큰 것은 그 피로를 감수할 만큼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밤 잘 셉니다)

그 '무언가'는 하나님의 온정과 사랑이 입시생들에게 전해질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희망으로

뒤섞인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안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었을까요. 원하는 곳에 붙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개중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 시절 많은 시간을 공부에 썼었고 현재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시간을 내어준 그 친구에게서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향이 나는 듯합니다. 옥합을 깨어 1년 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향수를 내주었다고 하기엔 비약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농기연이 참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학기 농기연에서는 '천로역정'을 가지고 온라인 책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모임 인도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이전에 4명의 고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과외를 했던 적이 있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기독교와 관련한 고전들을 주로 다뤘었기 때문에 '천로역정'의 경우 모임 구성원이 달라졌기 무언가 크게 변화할 것은 없지 않겠냐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책으로 읽은 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책이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천로역정은 생각했던 것만큼 만만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만화책으로 읽던 내용을 줄글로 읽으니 제가 기억하던 스토리라인은 전체 내용의 뼈대도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많은 사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

게 되는 인물 하나하나가 몇 컷에 넘어가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자신을 변증하고 크리스천의 의견과 경향하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좁은 문' 비유가 천로역정에서 쓰이는데, 평탄하고 탁 트인 초지가 있는 길과 험한 곳 보아도 굉장히 험소하고 위험한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책을 읽을 때는 '분명 아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는데 누가 평탄한 길을 저 때 선택하냐'라며 분별없이 비판하고는 했는데, 줄글로 다시 읽으면서 그 묘사와 상황을 제 삶에 대입해보니 제가 그 '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이 책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몇 가지 적었는데, 농기연은 다양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간단한 중간, 기말 뒤풀이/매주 목요일 점심 식사 교제부터 온라인 책 모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학기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B1 105A에 동아리 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010-8965-5113(문예은) 또는 010-9503-1198(최성호 농기연 대표)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문예은(산림 21)



농기연 불꽃놀이



점심 식교제와 모임



새터 꿀물 봉사



2023 스승의날 소식지

청년 토크 콘서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청년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5월 15일 월요일 오후 5:00-6:30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장소는 문화관 지하연 앞이었다. 이번 “청년 토크 콘서트”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거나, 교회는 다녀봤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경험해본 적 없거나, 크리스천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1부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4명의 간증자가 라이프 스토리를 전하는데, 라이프 스토리는 개개인의 배경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만난 후의 변화/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패널들은 이 콘서트가 각 기독교인의 삶의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명의 간증자는 김주영, 이은지, 이탄일, 서정우 학우로, 박예나 학우가 진행을 맡았다.

2부는 사전 구글 폼을 바탕으로 사전에 받은 질문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받은 질문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2부 현장 Q&A는 고성중 형제가 진행하였는데, 홍원의, 이경진 형제가 패널을 담당했다. 현장에서 1자 파일과 다과를 제공하였는데, 파일에는 QR 코드를 넣어 학내 선교단체나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주로 선교단체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 나누던 신앙 이야기를 열린 공간에서 일반 대중에게 전하는 것은 몇 없는 특별한 일이다. 서울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토크 콘서트인 것이다. 이 토크 콘서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어느 날 주위 신앙이 없는 지인들에게 들려주었던 일화를 통해 등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지는 알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표면적인 부분이 아닌, 내밀한 신앙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 없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토크 콘서트가 계획되었다고 하였다. 취재를 마친 후 글을 정리하던 중... 한 말씀이 뇌리를 스쳤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한 사람의 삶으로 증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이들의 증거에 힘과 용기가 실기기를,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이들의 토크 콘서트에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한다.

〈토크 콘서트 후기〉

**김주영(산림 18):**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주신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콘서트 중에는 그 자리에 있는 시간 동안 평화를 느껴서 놀라웠고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고 또 기쁜 일이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탄일(생명 18):** 일단 너무 재미있었고, 이런 날씨에 이런 사람들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축복으로 다가왔고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명진(수의예과 23):**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업과 신앙 생활을 어떻게 잘 병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나름의 해답을 얻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부 내 힘으로 하려고 애들바등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맡겨 드려야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문예은(산림 21) 학생기자

5시는 막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였다. 마침 교수님께서 수업을 조금 일찍 마쳐주셨기에, 지하연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토크 콘서트를 취재하러 갈 수 있을지 사

실 전 수업이 끝나기까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전 수업은 ‘성서와 기독교 사상의 이해’라는 강좌였다. 오늘의 주제 ‘사랑’ 강의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Cupiditas와 Caritas로 정의했다고 하였다. 사실 나에게 없는 이 Caritas 때문에 토크콘서트에 가보자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카리타스의 사랑은 존재에 대한 사랑이고 이는 만족이라고 한다. 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지칭한다. 쿠피디타스는 인간 세상에 만연한 ‘나’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타인을 소유하고자 하고, 자신의 뜻대로 조작하려는 행동을 쿠피디타스의 예로 본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사랑’ 중상당수가 쿠피디타스에서 나왔고 결핍의 사랑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떠난 불안에서 오는 한없는 욕망이 쿠피디타스를 낳는다.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교수님께서 잠깐 멈추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사유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토크 콘서트를 듣고 싶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을 만난다’가 그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고 싶었다. 또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Caritas의 하나님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지하연으로 갔다. 짐짓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

간증하시는 분 중에서는 모태신앙인 분도, 초신자인 분도 계셨다.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용기가 있으시다는 점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저분께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하시는 분이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 또한 강하게 들었다. 이탄일 선배님의 ‘1년 만기’ 기도가 또한 기억에 남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인지 1년 안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포부였는데, 사생결단의 자세로 그분을 찾을 때 응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했다.

이은지 간증자님의 ‘도미노처럼 일이 무너져버린 사건’도 인상 깊게 다가왔다.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려고 애들바등하다 하나님께 다시 의탁하게 되셨다는 말씀은 요즘 과제와 시험 및 연구 준비 등으로 혼잡해져 꼬여있는 실타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손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 상황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애들바등 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요즘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떠올랐다. 목적이 있기에 말을 걸고 유용하기에 가까이 지내는 관계가 아니다. 내가 그를 알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분, 온전한 카리타스를 지니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가 된다.

김주영 간증자께서 기도를 어떻게 사모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도 무척 인상 깊었다. 누님께서 신앙 훈련을 받고 돌아오신 후에 동생을 붙들고 몇 개월을 쉬지 않고 기도해주셨다는 부분이였다. 내게는 아직 대학을 입학하지 않은 남동생이 2명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누나일까 하는 질문이 들었다. 신앙을 서로 챙길 수 있는 남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부의 즉석 질문에도 답변하는 선배님들에 대해 동경심이 생겼다. 한 번만 들어봐도 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질문들이 여러 개 제시되었다. 사실 그중 몇 개는 내가 썼기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와 ‘대학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라고 한 질문들이 주로 생각한다. 이때 대학원에 가는 이유가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돕기 위한 실력을 연마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수십 년 전,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이었던 분들이 다수였던 사회에서는 학사를 졸업하고서도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용이했다. 오늘날은 기본 학사, 석박과정까지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매여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을 돕기 위해 박사 학위를 갖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머리를 비우고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교수님의 권고는 오늘 내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 마커스 찬양단의 〈주는 완전합니다〉가 생각나는 날이다.



1부 간증 시간



콘서트 시작 준비



2부 질의응답



콘서트를 즐기는 지체들

Veritas Lux Mea. The Truth is my Light.

# 청년 토크 콘서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궁금한 분들,  
교회에 다녀본 적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좋아보이지 않는 분들,  
크리스천의 간증을 들어보고 싶은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2023.5.15 (월)  
오후 5:00-6:30  
문화관 지하연 앞

1부: 그들의 이야기  
2부: 실시간 Q&A

**Speakers**  
김주영, 서정우, 이은지, 이탄일, 정명진, 문예은, 이경진, 홍원의, 이경진, 김주영

**Staff**  
고성중, 박예나, 서정우, 유인진, 박예나

문의전화: 010-6969-0324 (이경진)  
주최: 문화관 지하연 앞

토크 콘서트

# 개 강 예 배



Kahoot 접속



수의기연 결성의 날



예배 준비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 1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 2



중앙위원회의 예배 시작 기도



즐거운 식교제 시간 - 사회기연



찬양의 시간



축도의 시간



폐회 후 축복의 시간



함께 먹는 즐거움이 있는 식교제 - 자전기연



흥미진진한 Kahoot - 광고